

자연을 품은 산



송곡 심돈섭 | 시인

대자연 속에 존재하여 숲을 안아 주는 모태인 산(山)이 있다.

그 산 속에 수많은 숨쉬는 생명체가 종속 승계를 위한 생존경쟁으로 다양한 생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우주공간의 자연 속에서 살아남자면 삶의 경쟁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본연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 볼 수도 있고 직접 체험 할 수도 있는 것이 숲이다.

산천초목과 어울림의 공간 속에 생명체의 요동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신비의 조화로움들은 한치의 가식도 없는 무언의 포용력을 가진 모태가 존재 함이다.

한낱 식물군락 또는 한곳의 나무들을 보는 것보다 더 나아가 숲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숲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자연의 무수한 섭리를 감지 할 수 있다.

산야는 푸름을 가득 매워 녹타래처럼 일렁이는 가 하면 계곡수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여울져 흘러 낙엽을 띄워 보내고 온갖 날짐승의 지저귀, 풀벌레들의 실날같은 은은한 음률이 퍼져 숲 속을 메아리 치며 솔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그 잎들의 울동 꽃들이 내 뿜는 향기 등이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속에 묻혀 몽환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 이런 자연 속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생자의 연속성에 얽혀 돌아가야 하며 그 궤도를 벗어 날수도 없는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다.

숲 속의 산자수려함에 매료되면 조아린 몸과 허전한 가슴이 창공을 바라보며 활짝 펴게 된다. 자연 속에 묻힌 온갖 추억의 자욱들은 지워지지 않는 끈질긴 연(緣)이 품은 수많은 현상들의 조화로운 상징들은 언제나 그 모태를 벗어나려 발버둥쳐 보지만 대자연 테두리 내를 슬래비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의 모태인 산, 그 봉우리가 예쁜 여자의 정수리라면 아래로 내려뻗은 능선이 등의 흐름이요, 그 아래로 슬쩍 솟은 등은 히프이고 허벅지로 흐르는 은은하고 평화로운 곡선이 그려진다. 즉 인간의 곡선 또한 자연에서 물려받았으니 자연과 인간 간에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조화롭고 신비스런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태 속에 숲이 있음은 인간에게 무한의 수혜를 베풀어 준다.

그렇다면 이 강토의 숲은 어떠한가?

우리의 산림은 전국토의 64%로서 세계에서도 산림부국에 들어간다. 이런 산림국가로서 지구상에 유례없이 단기간에 녹화의 기적을 올린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1973년부터 치산녹화 10년 계획 하에 범국민 식수운동으로 온 국민이 참여한 1,2차 10년 계획의 식수운동과 3차 10년 계획의 육림

사업에 걸쳐 무려 2~3년 앞당긴 27만에 전 국토의 푸름을 이룩했다는 기적 같은 성공사례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것으로서 임정사에도 길이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이는 우리 겨레의 열성적인 참여의 식으로 이룬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당시 국가경제면으로 보아 풍부한 예산으로 이룩된 것도 아니다. 당시의 국가 총예산의 약 0.3%의 임업 예산으로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온 국민들의 힘을 모아 국토녹화의 집념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적인 힘이였다.

이제 임업국가로 발돋움해 가지만 좁은 국토 안에 산림자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임산자원의 자급 자족은 불가능하며 또 산업발전의 다양화, 다기능화 추세에 따라 목재의 소요량은 기하학적으로 늘어남에 국산재 충족은 5%내외이고 90%이상 수입재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폐잔 목재로 충당함은 그나마 과학발달로 대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의 숲에서는 직접적인 목재와 산림부산물 공급 외 공익적 기능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산업의 발달로 공해가 극심한 현세대에서는 숲으로부터 공익적 수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 임업은 환경과 조화롭게 환경임업으로 조성해 가는 추세임에 공익적 수혜를 열거해 본다.

숲은 자연의 공간으로서 거대한 산소 공장이며 성능좋은 공기 정화기로서의 건강증진 센터 구실을 하며 또 거대한 녹색댐으로서 저수기능과 재해 방지 구실도 하며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인 동시 문화의 산실이기도 하다. 2005년 산림통계를 본 바에 의하면 공익적 기능면에서 가치를 분석한 바

62조원 수준인 자원가치로서 특히 수원 함양 기능과 대기정화 기능이 각각 27%를 차지하고 그 다음 토사유출 방지기능 20%, 산림휴양 기능과 정수 기능도 각각 10%이며 그 외 토사붕괴 방지 기능 및 야생동물보호 기능도 있다.

특히 수원 함양 기능은 연간 190억 톤의 저수능력을 갖췄으니 이는 소양댐이 연간 19억 톤의 저수능력을 가졌음에 비하면 소양댐 10개의 담수 기능을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공익적 기능을 계수상 언급하지 않아도 과히 짐작 할만도 한 수혜 기능을 갖췄음을 말해 준다.

이런 중요한 숲을 우리 세대에서는 풍요로운 산, 건강한 숲, 행복한 국민정서의 터전으로 보전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이를 위해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높은 산림자원 육성과 국민의 숲으로 조성하여 산림사업의 경쟁력강화,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림으로 정착되는 체계로 추진하며 온 국민과 함께 참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래로 지향하는 우리 강산의 산림과 그 속의 숲의 가치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연간 100조원 상당의 가치로 향상 시킨다는 비전을 감안할 때 자연속의 모태인 산, 그 속의 숲은 우리 인간들이 포근히 손 내밀어 품어 주는 숲으로 이어감이 숲을 사랑하는 깨우침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싶다.

▣ 약력

- 산림청 및 정선, 삼척, 흥천국유림 관리소장 역임
- 동부지방산림청 경영과장 역임, 퇴임
- 한백문화기협회 부회장
- 산림청 숲 해설가